

고흥군, 복숭아순나방 발생 대비 적기 방제 당부

복숭아순나방 1차 방제 적기 4월 16일~20일경 예상



복숭아순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성충 발생 여부 예찰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복숭아 주요 해충인 복숭아순나방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면서 해충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부 과원에서 복숭아순나방 성충이 트랩에 소량 포획되고 있어 초기 발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숭아순나방은 성충이 신초에 산란하고, 부화한 유충이 새순 내부로 침입해 생육을 저해하는 주요 해충이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흥군은 앞으로 기상 여건과 해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찰해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2026년 농업인 대상 정보화 교육 운영

보성군은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온라인 홍보 및 경영 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와 콘텐츠 제작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AI 활용 농장 관리, △숏폼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 양성, △SNS 마케팅 4개 과정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군은 향후 '크리에이터 양성' 및 'SNS 마케팅'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매와 연계된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운영팀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 방문, 전화(061-850-5718)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해남군이 아이와 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총 1,300만원의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13개 사고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월 총족률 70% 이하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올해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부천시, 축구 교류로 상생 협력 강화

장흥군, 양파·마늘 재배지 생육관리 당부

진도군과 부천시가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축구동호회 친선 교류 행사'에서 고향 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상호 기부하며, 양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진도군 축구동호회는 부천시를 방문해 축구동호회 간 친선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매도시 간의 문화, 체육, 취미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의 상생 발전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축구동호회 간 친선경기, 부천시 주요 시설에 대한 견학, 양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식이 진행됐다. 부천시청 1층에서는 진도군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양파·마늘의 안정적인 생산과 저장성 향상을 위해 병해충 발생 최소화 약제방제, 포장 배수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로 인해 포장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노균병,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등 주요 병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배수가 불량한 포장에서는 병 발생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4월에는 양파 노균병 2차 감염이 본격화하며, 잎에 검게 붙는 분생포자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기온이 25℃ 이상으로 상승하면 잎마름병, 무름병 등 고온성 병해도 양파와 마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병해를 예방·방제하기 위해서는 비 오기 전·후에 전용 약제를 살포하고, 잡초 제거와 배수 관리 등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정근 기자

'완도 여행 반값으로!' 지역 사랑 휴가 지원제 시행

완도
반값여행
힐링하기 좋은 곳, 자유의 섬 완도 | 2026년 휴가지원제

완도군 관광지를 체험, 방문한 관광객에게 최대 50만원 모바일 완도사랑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2026년 5월 1일(금) ~ 8월 31일(화)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0만원 상품권 지급

참여대상 타 지역에서 완도를 여행하고 싶은 내국인 관광객
* 1인당 최대 1명, 1가족 최대 4명까지

신청방법 완도관광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6년 4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원내용 완도군 관광에 최대 50만원 지원
* 완도관광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상품권 100% 환불 가능 (단, 5000원 이상 결제 시 50% 환불 가능)
* 숙박, 식사, 체험,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비용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인접 지역(해남군, 강진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완도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다.

여행 경비를 지원 받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1인) 기준 최대 10만 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 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 단체(가족, 최대 5인)는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완도에서 전북 요리를 먹고 숙박하는 데 40

완도군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만 원을 지출했다면 2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반값에 여행을 즐기는 셈이 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을 오기 전(최소 1일 전)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을 통해 5월 여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여행이 끝나면 10일 이내 완도군 대표 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 2장(신청자 및 동반인 필수 포함) 이상, 영수증을 증빙하면 5일 이내에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chak 어플)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반값으로 완도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치유 여행을 즐겨보시길 추천한다"면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도로 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